중심 제조노동자! 2022년 정의로운 전환 쟁취!
·유통노동조합연맹

섬·유통노보

2022. 7. 22. [ ]
821호

: 오영봉／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발행／전화 02) 3665-3117 FAX 02) 3662-4373 www.tex-inochong.org

연맹, 호남지역본부 대표자 간담회 개최

( )하림 신노동조합 집행부 간담회 및 사측관계자 면담 가져

연맹은 지난 18일(월) 11시 호남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호남지역본부 대표자 간담회를 가졌다.



연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대회 이후 각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연맹의 하반기 사업계획과 각 단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호남지역본부부터 시작한다”면서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호남지역본부 대표자들은 하림신노조의 전임문제와 정년연장 법제화,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 이후 연맹의 대응방안 및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연맹 위원장은 하림의 경우, “연맹의 입장은 기존 구노조가 해산하고 신노조가 교섭할 수 있게 할 것이지만, 사측의 정치력 등으로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며 “노동부에 체크하고 있으며 좀 더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직을 위주로 대안을 만들고 노무법인과 협약하여 지원하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회간사문제는 “행적적인 지원만 하고 열악한 부회는 사안에 따라 파견 하겠다”고 답했다.

주요일정

☐ 신원휄트노동조합 제33년차 정기총회
- ▸ 일 시 : 2022. 7. 28.(목) 16시 30분
- ▸ 장 소 : 당진공장 교육실

이밖에도 연맹자립도에 대한 답변으로 “연맹은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며, 현재로써는 조직 확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하림, 신노조 집행부 간담회개최

연맹은 호남지역본부 대표자 간담회 이후 14시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주)하림본사를 방문하여 노조집행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맹은 이날 간담회에서 배기영 위원장 및 노조간부들의 조합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관련 고소사건과 구노조 부존재확인 소송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사측의 최영호 상무 등 노사지원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연맹위원장은 “배기영 위원장이 사측의 임원들보다 회사를 사랑하는 애사심이 높다”며, “배기영 위원장과 함께해야 회사의 위기 시 누구보다도 사측을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연맹은 어떠한 부당노동행위 등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노총과 노동부 그리고 정치력을 총동원하여 노조를 지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맹위원장, 박근식 총괄본부장, 정대중 정책실장, 최한식 의장, 전세성 한국노총 익산지부 의장, 이주태 사무국장, 최영호 상무, 김현 팀장 등이 참석했다.